"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왕하7:2)."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 한 말이었습니다. 지금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군대를 데리고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고립되었고 성안에는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6장25절에 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팔십 세겔이요 비둘기 똥 사분의 일 갑에 은 다섯 세겔이라"하였는데, 이 말은 평상시 같으면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마저도 비싼 값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사마리아 성안에 얼마나 먹을 식량이 없었는지 두 여인이 서로 자신들의 어린 아들을 잡아 먹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받을 축복과 불순종 하였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가 그대로 사마리아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53절과 55절 말씀입니다.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53절).....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55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으로 끔직한 일들이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이 모든 상황을 엘리사의 탓으로 돌리고 있고 그 때문에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이 보낸 사자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7:1)."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여서 지금 사마리아의 물가는 엄청나게 폭등하였고 성안에는 먹을 식량이 없어 자기들의 어린 아이까지 잡아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당장 내일 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엘리사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의 측근 중의 한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라고 냉소적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이 장관의 이와 같은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고 어찌 보면 이 장관의 반응은 상당히 합리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지금 눈 앞의 현실이 너무나도 참혹하고 비참하기 때문에 도무지 방법이라고는 없는 상황에서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성이 없고 보이고 터무니 없는 주장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장관의 반응에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7:2)."

성경에는 이어서 나병환자 네 명이 등장합니다. 이 나병 환자 데 명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병에 걸려 일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성문 어귀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이나 하며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조차도 마음껏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포위되었고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조차 먹을 식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것이 해결 되지 않으니 사람들은 이 나병환자를 돌보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병환자들의 상황은 예전보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네 명의 나병환자들은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아람 군대를 찾아가 항복하지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사마리아로 간다고 한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굶고 있으니 자신들도 마찬가지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곳에서 머물러 있자니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자신들도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여서 그들이 살려주면 살게 될 것이고 만일 그곳에 가서 죽게 되어도 어차피 마찬가지 결과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 이 나병환자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람 군대는 모두 도망갔고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 소리를 듣게 하셨는데 그 소리를 들은 아람 군대가 앞을 다투어 모두 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는지 자신들의 무기나 말과 나귀 그리고 식량들을 모두 그대로 남겨두고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이 네 명의 나병환자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에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다 보니 사마리아 성안에서 아직도 굶주리며 있는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7:9)." 이 나병환자들이 발길을 사마리아로 돌려 아람군대가 모두 도망을 갔고 이곳에 무기와 식량을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소식을 성안에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신하를 보내 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왕의 신하가 아람군대의 진영에 가서 보니 그곳에는 아람 사람들이 급히 도망가느라고 버리고 간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이내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었습니다(7:16).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대로 되었습니다(7:16).

사마리아의 모든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가 앞을 다투어 성을 나서서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달려갑니다. 백성들이 한꺼번에 몰리니 성문을 지키고 있던 그 장관이 백성들의 발에 밟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장관이 아람 군대가 도망가고 사마리아가 하루 아침에 정상으로 되돌아 갔다는 소식은 듣게 되었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였으니 엘리사가 대답한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앙의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 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나 참혹하여서 도무지 조금의 희망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장관의 생각과 반응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그 분의 계획을 믿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엘리사가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또한 나병환자라는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나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장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은 그 네 명의 나병환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나병환자들은 아람 군대가 모두 도망을 갔고 그들이 남겨두고 간 병기와 식량들이 있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에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절망하며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두가 다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황이나 자라온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 나병환자들과 같이 절망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 길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멸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병에 들지 않아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그들도 절망적이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아람군대에 둘러싸여 언제 죽을는지 혹은 포로로 끌려갈는지 알 길이 없고 성은 포위 되어 식량은 없는 상황에 아이들까지 잡아 먹는 참담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들어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들의 죄 때문에 모두 지옥에 가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이 나병환자들 같이 절망 중에 있다 하여도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가 모두 도망간 것을 엘리사를 통하지 않고 이 나병환자들을 통하여 사마리아에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